

크리스마스 썰 증정의 유래와 2012년 썰 증정



1 크리스마스 썰 발행 이후 최초로 이승만 대통령께 크리스마스 썰을 증정함으로써, 이후 대통령과 삼부요인 썰 증정이 정례화되었다.

2故 이찬세 전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께 크리스마스 썰 증정을 하고 있다.

1932년 캐나다인 선교의사 셔우드 홀을 통해 국내에서 결핵퇴치 기금마련을 위한 첫 썰이 발행되었고, 이후 1953년 대한결핵협회의 창립과 함께 크리스마스 썰은 결핵퇴치의 상징과도 같은 모금사업으로 자리잡았다.

크리스마스 썰이 전 국민적인 모금운동으로 자리잡기까지 당시 결핵 퇴치에 대한 절박함과 함께 대통령과 삼부 요인 썰 증정 행사 등이 큰 도움이 되었다. 오랜 미국생활을 통해 썰 모금의 취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때 처음 시작된 대통령 크리스마스 썰 증정은 이후 삼부요인을 비롯한 종교계 등으로 확대되었고 썰 모금운동의 취지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시대가 바뀌고, 우리나라의 결핵상황도 많이 좋아져 결핵은 약만 잘 먹으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 그렇다고 결핵이란 병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병률, 사망률 전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의 발전 속도 만큼, 질병 수치가 빨리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결핵은 만성 감염병이다. 감염되었다고 당장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복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핵을 퇴치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결핵의 문제는 청장년층 발병 및 학교에서의 집단발병, 결핵약제에 내성을 갖는 다제내성결핵 등을 꼽을 수 있다.

2012년 크리스마스 쉼 모금운동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협회는 본부와 지회, 지사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쉼 증정 행사를 가졌다. 본부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에게 크리스마스 쉼을 증정하며 법조계, 종교계의 참여를 이끌었다.

각 지회, 지사에서는 시도지사, 교육감 등에 크리스마스 쉼을 증정함으로써 결핵 상황에 대해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내 결핵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며 결핵퇴치 사업의 어려움을 알려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 바로 크리스마스 쉼 증정행사의 미덕이 아닌가 싶다.†



Christmas Seal



3 2012년 12월 10일 우리 협회 문영목 회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크리스마스 쉼을 증정하고 있다.

4 2012년 12월 20일 우리 협회 문영목 회장이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에게 크리스마스 쉼을 증정하고 있다.